

안녕하세요.

긴 겨울, 매섭고 차가운 바람 견뎌내며

‘따뜻한 봄이 오면 자태를 뽐내리라.’ 제 몸 지켜온 작은 꽃망울들이  
여기저기 ‘핑핑’ 터지고 있습니다.

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환희와 희망의 기운을 뽐어내고 있는데

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껏 뽐낸 자연을 온 몸으로 환영하며 예뻐해 줄 수 없는  
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.

그래도 어둠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, 더 값지고 반짝이는 수 많은 빛을 만들어  
내는 우리 국민의 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

서문초 어린이 여러분!

온라인으로 개학하게 되는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.

손꼽아 학교 가는 날 만을 기다려 온 여러분들처럼, 예쁘게 교실을 단장하고  
여러분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학교 안에 가득합니다.

새로운 선생님, 새 교실, 새 친구에 대한 3월의 기대감도 이제는 많이 사그러  
들었을 것 같지만, 등교하는 그 날, 학교생활의 소중함, 만남의 소중함으로  
더욱 더 짙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

훌쩍 커버려서, 어찌면 학 학년씩 더 올려줘야 할 정도가 되어서 오지 않을까  
상상도 해봅니다.

앞으로 전개될 학습이 온라인이어서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, 자기주도적 학습  
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고 불안하여도 새로움을  
시도하며 배운다는 자세로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시간이 지나면 잘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, 칭찬할 수 있는  
자신감도 생겨날 것입니다.

여러분!

곧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.

그 날까지 온라인학습에 열중해주시고 건강관리 잘해서 기쁜 미소 가득 안고  
건강하게 만나기로 해요.

여러분, 사랑합니다.

2020.4.16

서문초등학교장 강선영